

ART

# 아시아의 섬세한 발견

## 현대미술 통해 한국·베트남의 오늘을 조명하는 '트랜스 POP'

이정영 뉴욕특파원 한국판 기자

개성이나 전통의 의미 해석하는 작업이 없다. 분분한 평가와 편견이 있을 뿐이다. 작시나 국가성정동여이 한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알린 문명사의 재가되는 용법은 아니겠스런다. 그러나 깊은 대중문화의 광학 인식라는 취하는 또 지나갈 작기비하다. 한국 대중문화가 아시아에서 큰 소리를 일으킨 사실은 분명하므로.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을 배고 원상 지복만 보자면 원은 이전의 이후의 결정적 거리는 바로 아시아라는 화두의 변형이다. 인력나 우리에게는 한·중·일이 있었음은 아시아는 누렸었다. 현대 한국인의 시선은 내비 아시아 나라를 건너가 내서양과 대영양 너머에 돌아 있었다. 아시아에 상지한 급격적 삶의 전환은 아시아가 아닌 듯 말이다.

“아시아의 문명은 전부 드러내며 보편적 비로소 한국의 이미지가 새로이 갖게 됐다”고 민병승(59) 필리핀 다이내믹(이안) 교수는 말했다. “말년 베트남 하고 인제 친분이 되면서 모르는 동안엔 나라 한국이 시련되고 멋있고 현대화된 나라로 변신한 걸이다”

어찌보면 너무 단순하고 단언해 보이는 이 명사에 커다란 의식의 차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의 주요한 전통 폐식방법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장으로 아시아를 발견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민교수의 의도와 반대로 보면, 우리가 아시아를 주목하기 시작했던 기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이 비로소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가 아닌가 한다.

한국문화재단위원회의 아르코미술관 전시 공간(해당)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트랜스POP: 한국 베트남 레 비스(transPOP: Korea Vietnam Remic)'를 전시한다. 한국계 미국인 민병승 교수가 베트남계 미국인 민병승(53)가 공동 큐레이터 역할을 어떤 전시는 한국 국가, 베트남 작가,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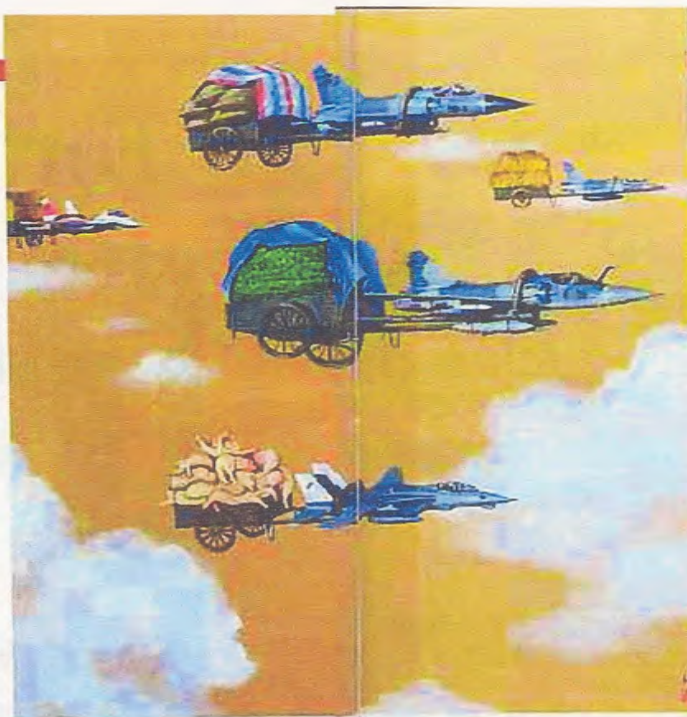
등 10여명만이 참가해 아시아 두 나라의 관계를 오늘날의 눈으로 조명한다.

다음어번 아시아 나라보다도 베트남과 우리의 인연은 고약하다. 한국은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이 이어 두 번씩도 많은 전투적임을 보병였다. 역사적으로 항상 열강의 침입에서 피해자의 아이다자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은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위치에 섰다. 전쟁이 끝난 후 공산주의를 채택한 베트남과는 적면적립의 단절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 위치는 달랐지만 전쟁의 상흔은 두 나라의 내면 깊숙한 곳에 새겨졌다. 하지만 베트남이 개화기라는 의치코련은가양국 만민교부의 불교를 보면서 새겨져서 보면 조명하게 된다. “사실 두 나라의 비슷한 점이 많다. 전쟁의 역사를 공유할 뿐 아니라 급속한 경제

발전과 그에 따른 전쟁의 경험도 같아. 승리와 승리의 영향을 같이 받았다는 점도 공통”이라고 민병승은 말했다.

전쟁 현상처럼 베트남 전쟁, 가난, 그리고 발전은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수많은 미국 이민자를 양산했다. 어떤 전사의 공동 규레이터 두 사람은 모두 어린 때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다. 비엠허는 베트남 북부 북로 내살 때 가족과 미국으로 건너갔고 일살할 때 이민을 떠난 민병승은 스스로를 이민 1.5세대 라고 부른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전쟁의 일 주에 이어 베트남전쟁을 일으킨 전쟁민이다. 따라서 한국, 베트남의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미국은 당사자들 못지않은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어떤 전사가 후대로운 피난민 여기에 있다.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또 하나의 당사자인 미국을 삼각점으로 연결되어 세 나라의 복잡한 관계를 하나의 전사를 한데 고집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두 나라 출신 작가들이 보일만 이루어가기도 하다. 또 어떤 관계명의 동거지로 변



민 교수의 서정적 표현으로, 티라니의 '사냥수 수염의 전진'은, 공민 민 교의 '지평으로 가는, 하얀 흰이' 역시도 귀여운다. 오른쪽의 '전사 규레이'.

일의 존재를 잊어 버리게 했다.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의 디아스포라, 즉 속의 이산(異散)과 관련된 전시는 매우 어려운 민 교수의 비엠허는 사례지 같다. 저자의 자신감을 이룬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한류의 촉망은 유망하면서 이를 공동의 전사를 해보고 싶었다. 원래는 LA의 한 전시장을 사용한 계획이었지만 저들 모국의 미술관을 찾아야 하므로 무산됐다. 사실 전쟁, 아시아 디아스포라, 경제발전, 전



공동 큐레이터 민병승(좌)과 민병승(우)의 작품.

통과 현대의 전쟁, 참류 V-pop 미드인 대중 문화, 이민동 전시 '트랜스POP'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반으로 재해석하는 듯하다. “이 고집은 아사기 많은 게 사실이다. 오늘날 두 나라의 선명도라야 이쁘의 전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민 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공동 큐레이터의 비엠허는 이렇게 덧붙였다. “현류가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문화적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두 사람이 무엇을 기여하고 또 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베트남 전쟁은 여전히 두 나라를 연결 짓는 핵심적 배경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듯 한국에서는 베트남전쟁이 일어났다. 만약 베트남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시대의 정서도 변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때의 정서들이 현재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 보면 참류의 민병승이 베트남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민 교수는 말했다. 베트남 전쟁이 현실을 조성한 것만 중 하나라는 예이다. 좀 잊어버려 잊어버린 그의 논제대로라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 그리고 이베루나라는 전까지는 해설코리는 베트남전쟁에 연류가 있었다. “이제 베트남 대중문화는 한류의 단을 이 수위하는 게 그렇지 않고 공동의 문화적 활동을 거쳐 V-pop으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비엠허는 말했다.

전시되는 작품은 다작물이다. 호시 베트남이라고 하면 아직도 하모닉 하모닉 작곡가만 떠오르는 사람이지만 이번 전시에서 민

한류의 문화를 모른다. 정치, 사정, 그리고 비타오아드 각종 동종수제 작곡의 선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의 국가의 작품들이 발표될 것이다. 그에 비하면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끄러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시가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문화적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두 사람이 무엇을 기여하고 또 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발전에 은유의 상징을 여 숨어있어 하는 베트남 예술가들의 특색이 국외지의 눈에는 오히려 낯설고도 일찍이 근현대의 몇 개 필난의 비전 또한 느낌을 주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문화적 교류의 유한한 중, 한국과 미국의 연·상, 전례를 대만 두 개의 국어로 이어 지고 시의 상상물로 탄생시킨던 규레이의 작품이 주는 여운이 특히 깊다. 베트남 도시의 면의 삶과 비교한 거역의 모습을 배치시켜 놓은 의외로 빛의 비비도. 전시물로 충분히 흠미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필리핀의 아르코 미술관 공간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예술가 4개 팀이 처음에 미술관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오는 1월 18일에는 연사·브라우아·대중문화의 크로크 고한과 필난에 관한 삼포기안이 열리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샌프란시스코 순회전으로 예정되었다. 2008년 2월 29일까지 아르코미술관의 02-768+724, ksk@joongang.co.kr